
김시중의 '재일'과 제주 4·3의 시적 형상화

하상일*

-
1. 머리말
 2. '재일'의 근거와 '비평'으로서의 시적 지향
 3. 제주 4·3의 기억과 시적 형상화: 여름에서 봄까지
 4. 맺음말
-

1. 머리말

김시중은 1929년 부산에서 태어나 1935년 제주도로 이주하였고, 1942년 광주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줄곧 제주도에 성장했다. 해방 이후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 <제주도 인민위원회> 활동을 시작했고, 1947년 <남조선노동당> 예비당원으로 입당하여 제주 4·3 항쟁에 가담했는데, 1948년 5월 '우편국 사건' 실패 후 검거를 피해 은신하며 지내다가 이듬해 1949년 5월 아버지가 준비해준 밀항선을 타고 제주도를 탈출하여 일본 고베 앞바다 스마[須磨] 부근으로 밀항했다. 이후 일본공산당에 가입하여 본격적으로 재일조선인 조직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1950년 5월 26일 『신오사카신문』의 '노동하는 사람의 시(働く人の詩)' 모집에

* 동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교수

‘직공 하야시 다이조[工員林大造]’라는 이름으로 일본어 시 「꿈같은 일(夢みたいなこと)」을 발표하였으며, 1951년 <오사카재일조선인문화협회>에서 발간한 종합지 『조선평론』 창간호에 「유민애가(流民哀歌)」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2호부터 편집에 참여하다가 4호부터는 김석범에 이어 편집 실무를 책임졌고, 1953년 2월에는 조직의 지시에 의해 <오사카조선시인집단>을 결성하고 시 전문 서클지 『진달래(チソダレ)』를 창간했다.¹⁾

특히 『진달래』는 일본 공산당 산하 민족대책본부의 지령으로 김시종이 편집 겸 발행인이 되어 창간했는데, 문학을 통해 오사카 근방의 젊은 조선인들을 조직한다는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모더니스트 시인 정인(鄭仁)을 배출하는 등 점차 문학 자체를 추구하는 장으로 변화해 갔고, 1955년 5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 결성 이후 좌파 재일조선인 운동의 방침이 크게 전환되면서 북한의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조직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되어 1958년 10월 20호로 중단되었다. 이후 1959년 6월 김시종, 정인, 양석일 3명이 『진달래』의 정신을 이은 『가리온』을 창간했으나 이 역시 조직의 압력으로 불과 3호만 발간하고 중단되고 말았다. 이처럼 재일조선인 조직과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은 김시종의 이후 활동과 시집 발간 등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는데, 1955년 첫시집 『지평선』, 1957년 두 번째 시집 『일본풍토기』를 발간했지만, 세 번째 시집으로 기획되었던 『일본풍토기Ⅱ』는 『진달래』 문제로 <총련>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 원고마저 분실하여 발간하지 못했다. 1970년

1) 지금까지 출간된 대부분의 책에서 김시종의 출생지를 ‘원산’으로 명기했으나, 최근 출간된 자전에서 그는 “나는 항만도시 부산의 해변에 있는 ‘합바[飯場]’에서 태어났다”고 새롭게 밝혔다. ‘원산’은 아버지의 고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김시종은 유년 시절 그곳에 있는 친가에 잠시 맡겨진 적은 있지만 태어난 곳은 ‘원산’이 아니라 ‘부산’인 것이다. 김시종에 관한 자세한 연보는 다음 책들을 참고할 만하다. 김시종, 윤여일 옮김(2016), 『조선과 일본에 살다』, 돌베개; 윤건차, 박진우 외 옮김(2016),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출판; 김시종, 윤여일 옮김(2017), 『재일의 틈새에서』, 돌베개.

『니이가타』를 출간하면서 다시 시 창작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는데, 『삼천리』에 연재했던 『이카이노 시집』(1978)을 비롯하여 『광주시편』(1983), 『들판의 시』(1991), 『화석의 여름』(1998) 등을 지속적으로 출간했다. 이처럼 김시중은 해방 이후 재일조선인 시인 가운데 가장 활발한 시작 활동을 펼친 것은 물론이거니와, 재일조선인 조직 운동과 재일조선인 시문학 운동의 중심에서 보여준 그의 면모는 재일조선인이 책임져야 할 시대정신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김시중의 시를 제주 4·3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즉 그가 민족 혹은 국가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폐쇄성을 넘어서 '재일'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재일한다[在日する]'라는 적극적인 의지로 심화된 그의 언어의식과 실존의식이 제주 4·3을 증언하는 역사 의식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 그가 제주 4·3의 직접적 체험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것이 200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했다²⁾는 점에서, 그의 시에 형상화된 제주 4·3의 모습은 현장성이 강화된 직접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보다는 폭력의 시대가 자행한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기대어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형상화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김시중과 제주 4·3의 시적 형상화는 다분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방식으로 부당한 시대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성격을 지녔다. 이러한 특징은 김시중에게 있어서 제주 4·3이 자신의 삶과 시를 규정하는 근원적 바탕이 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오랜 세월 그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을 원죄처럼 감추고 살아

2) 김시중이 제주 4·3의 경험을 처음 공공장소에서 언급한 것은 '제주도 4·3사건 52주년 기념 강연회'(2000년 4월 15일)에서이다. 이 때의 강연 내용은 『圖書新聞』2487호(2000년 5월)에 게재되어 있다. 김석범·김시중, 문경수 편, 이경원·오정은 역(2007), 사회과학연구소 편,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교출판부, 15쪽.

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김시종의 삶과 제주 4·3을 연결 짓는 지속적인 논의 위에서 그의 시가 제주 4·3을 어떻게 형상화했는지를 이해 하려는 시도는, ‘재일’의 역사를 짚어온 채 살아온 김시종의 시와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재일’의 근거와 ‘비평’으로서의 시적 지향

제주 4·3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밀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김시종은 자신과 제주 4·3의 관련성을 철저하게 숨기며 살아야만 했다. “설령 죽더라도, 내 눈이 닿는 곳에서는 죽지 마라.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 다.”³⁾라는 마지막 말로 자신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뼈저린 심정에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그에게 일본으로의 밀항은 생활이 아닌 생존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으므로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했기 때문이다. 만일 신분이 탄로나 붙잡히게 되면 오무라[大村] 수용소로 보내지고 그 이후 본국으로 송환되어 처형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일본 생활 내내 벗어날 수 없는 고통으로 남겨져 있었다. 따라서 그는 조국의 운명을 등지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책감과 일본 정착에서 비롯된 불안감을 넘어서는 방편으로 일본 공산당에 가입하여 조직적인 운동의 차원에서 문학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하지만 그는 1955년 조총련 결성 이후 재일조선인 조직이 문화 운동에 있어서 북한에 의한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문학 창작 역시 조선어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식적인 방침에 반발하여 조총련과의 심각한 갈등을 겪어야만 했다. 당시 김시종이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은 ‘조국’, ‘민족’, ‘국

3) 김시종, 윤여일 옮김, 『조선과 일본에 살다』, 앞의 책, 223쪽.

가'와 같은 추상적인 이데올로기가 아닌 조국을 떠나 일본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재일'의 실존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 있었다. 즉 '재일'의 근거는 인간 존재의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일본인이 일본에 살고 있는 것, 즉 인간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같은 정도로 무거운 문제"⁴⁾라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김석범의 견해와 일치하는 문제의식을 견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재일'의 실존적 위치를 남과 북의 대립과 경계를 넘어서는 창조적인 위치로 의미화하는 김석범의 문제적 시각⁵⁾을 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제주 4·3이라는 비극적 운명을 극복하는 길은 민족 분단을 허물어뜨리는 '재일'의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의 첫 시집 『지평선』은 이와 같은 의식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지평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이 지평이다./ 틀림없는 지평이다."⁶⁾라는 단정적 어법에서 '재일'의 실존적 위치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재일'의 근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두 번째 시집 『니이가타』에서 분단의 상징적 경계인 38도선을 넘어가는 재일조선인의 조국 지향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조총련과의 갈등으로 인해 북한으로의 귀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는 일본에서 살아가면서 남과 북의 분단 현실을 넘어서는 '재일'의 근거를 찾는데 주력했는데, 이

4) 김석범, 「在日とはなにか」, 『季刊三千里』18호, 1979년 여름, 28쪽; 김계자(2016.5), 「김시중 시의 공간성 표현과 '재일'의 근거」, 『동악어문학』 제67집, 180쪽에서 재인용.

5) 김석범은 " '재일'은 남북에 대해서 창조적인 위치에 있다. 이는 남북을 초월한 입장에서 조선을 봐야한다는 의미이고, 또 의식적으로 그 위치 즉 장(場)에 적합한 스스로의 창조적인 성격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재일'의 위치를 "남북을 총체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있기 때문에 그 독자성이 남북통일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 김석범, 앞의 글, 35쪽. 김계자, 앞의 글, 180-181쪽에서 재인용.

6) 김시중, 광형덕 옮김(2018), 「자서」, 『지평선』, 소명출판, 11쪽.

것이 바로 ‘재일을 산다’라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주체적 실존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북조선으로 ‘귀국’하는 첫 번째 배는 1959년 말, 니이가타항에서 출항했는데, 『장편시집 니이가타』는 그때 당시 거의 다 쓰여진 상태였다. 하지만 출판까지는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으면 안 됐다. 나는 모든 표현 행위로부터 핍색(逼塞)을 강요당했던 터라, 오로지 일본에 남아 살아가고 있는 ‘재일’의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 발견해야만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이른바 『장편시집 니이가타』는 내가 살아남고 생활하고 있는 일본에서 또다시 일본어에 맞붙어서 살아야만 하는 “재일을 살아가는 (在日を生きる)” 것이 갖는 의미를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었던 시집이다.⁷⁾

이처럼 김시중은 “재일을 살아가는” 시인으로서, 제주 4·3의 기억을 극복해 나가는 ‘재일’의 근거 찾기에 주력하며 시작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시적 지향은 “내가 살아남고 생활하고 있는 일본에서 또다시 일본어에 맞붙어서 살아야만 하는” 이유와 근거를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묻는 과정이었다. 여기에서 그는 일본어로서 일본어에 보복하는 것, 즉 숙달된 일본어를 의식적으로 뒤틀어 버리는 데서 일본어로부터 구속된 자신을 벗어나려는,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인 되기를 강요당하지 않으려는 ‘비평’으로서의 시 의식을 정립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의식적 노력에는 동일성으로서의 세계관에 입각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전통 일본 서정시인 ‘단가(短歌)’를 부정하는 오노 도자부로(小野トサブロ)의 『시론』으로 받은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김시중은 1949년 일본으로 밀항해 오사카 이카이노에서 임대조라는 이름으로 생활할 때 오사카 난바에 있는 헌책방에서 오노 도자부로의 『시론』

7) 김시중, 광형덕 옮김(2014), 『시인의 말』, 『니이가타』, 글누림, 7-8쪽.

을 발견하고서, '재일'을 살아가는 시인으로서의 운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립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즉 '재일'과 '시'의 결합으로서의 김시중의 운명은 일본의 시인 오노 도자부로와의 시론을 만나면서 비로소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오노 도자부로의 시론에서 무엇이 김시중의 시적 방향과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은 김시중의 시와 시론의 핵심을 관통하는 형식과 내용을 설명하는 것인 동시에, 그의 삶을 규정하는 '재일'의 실존과 언어 의식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실제로 김시중은 『'재일'이라는 협곡에서』에서 “시란 이런 것이고, 아름답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나의 편견을 저 밑바닥부터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것이 『시론』과 오노 도자부로의 존재였습니다.”⁸⁾라고 말할 정도로, 김시중에게 끼친 오노 도자부로의 영향은 그의 삶과 시를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오노 도자부로는 오사카를 중심으로 일본 프롤레타리아 문학 운동을 했던 시인이다. 그는 “현대시란 서정의 내부에 있는 비평의 요소를 자각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하면서, “오늘날에는 생각하는 일, 비판하는 일은 서정의 작용 그 자체와 무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로 그 서정의 성질을 좌우하고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는 “시를 그저 막연한 '음악'의 상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으로 감지할 수 있는 능력”⁹⁾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비평'이란 시가 사상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즉 '진통 서정'에 대한 부정을 통해 혁명적인 세계관을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현실 인식이야말로 '서정'으로서의 시가 갖추어야

8) 심수경(2017), 「재일조선인 문예지 『진달래』의 오노 도자부로 수용 양상」, 『일본문화연구』 제6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184쪽에서 재인용.

9) 오노 도자부로, 『現代詩手帖』, 創元社, 1953, 3-4쪽. 심수경, 앞의 글, 185쪽에서 재인용.

할 가장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가 7·5조의 전통적 율격에 갇혀 있는 일본 전통시 ‘단가’의 서정적 세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서정으로 나아가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비평’으로서의 시적 지향이 보여주는 비판적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두고 서정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 때문이다.

제가 경애하는 오노 도자부로의 『시론』을 보면 시적 행위 - 요컨대 시에 주력하는 의지적인 행위라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만 - 라 함은 “느슨하고 지루한 시간인 일상생활의 바닥에 보이는 항상적인 저항의 자세”라고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익숙해진 일상으로부터의 이탈과 그렇게 익숙해진 일상과 마주하는 것이 시를 낳는 원동력이라고 말하고 있음에 다름 아닙니다. 적어도 자의적인, 우연한 사념조작(思念操作)이 그려내는, 혹은 그려낼 요량으로 있는 추상 능력으로는 시적 행위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¹⁰⁾

이처럼 김시종은 오노 도자부로의 시론으로부터 ‘단가적 서정의 부정’¹¹⁾과 ‘정형화된 의식의 탈피’¹²⁾라는 두 가지 ‘저항’의 의미를 발견했다. 앞서 살펴봤듯이 그는 자신의 시가 일본어에 대한 보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는데, 이를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10) 김시종, 「시는 현실 인식의 혁명」, 『지평선』, 앞의 책, 198쪽.

11) 오노 도자부로는 “단가의 정형화된 31자의 음수율 속에 거대한 공룡 같은 것이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그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어떤 혁명적인 것도 그 의미를 소멸시켜 버리고 종래의 세계관과 사회관에 용해되어 버리는 강력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시는 단가적 서정에서 벗어난 새로운 서정 즉 “현실로 하여금 부르짖게 한다”는 방법의 새로운 리얼리즘이어야 한다”라고 보았다. 심수경, 앞의 글, 186쪽.

12) 김시종은 “민족 혹은 국가 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시의 정형성, 즉 획일화된 형상적 체계와 이미지는 재일의 삶과 문제의식에는 맞지 않는 것이므로, 재일의 시와 조국의 시는 분명 달라야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형화된 의식의 탈피’에서부터 재일조선인 시문학의 주제적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일(2017), 「김시종과 『진달래』」, 『한민족문화연구』 제57집, 한민족문화학회, 73-74쪽.

일본 시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파괴하고 전복하는 것이야말로 상당히 유효한 시적 전략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일본어의 가장 아름다운 규범처럼 인식되어 온 단가를 부정하여 스스로 일본 시가의 무의식적 전통에 깊숙이 침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식적으로 일본시의 음률적 전통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일본어에 대한 보복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본어와 일본 시에 대한 전복은 '재일'이라는 실존적 상황과 조건 속에서 조국과 민족이라는 관념적 이데올로기가 강요하는 '의식의 정형화'를 탈피하여 '재일'의 특수성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정치적인 것과 문학적인 것의 차이를 도외시한 채 조직의 통제와 지시 안에서 문학의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국 '재일'의 실존을 외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시중은 '부정'과 '저항'으로서의 사상적 지향을 담은 오노 도자부로의 '비평'으로서의 시론을 토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형상화하는 데서 '재일'을 살아가는 시인으로서의 올곧은 시적 방향을 정립하고자 했다. 즉 동일성을 구현하는 조화와 찬미의 세계에 바탕을 둔 자연을 제재로 한 전통 서정이 보여주는 음률적 지향을 넘어, 현실을 사유하고 비판하는 '비평'으로서의 시적 지향을 새로운 서정의 태도로 정립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제주 4·3이라는 근원적 죄의식과 불안을 극복해야만 했던 평생의 과제를 실천하는 가장 의미 있는 시와 시론의 방향이 되었다.

3. 제주 4·3의 기억과 시적 형상화 : 여름에서 봄까지

김시중은 시집 『잃어버린 계절』에서 “4월은 4·3의 잔혹한 달이며, ‘8월’은 찬란한 해방(종전)의 백일몽의 달이다.”¹³⁾라고 했다. 이 두 계절

13) 윤여일, 「부재의 재」, 김시중, 윤여일 옮김, 『조선과 일본에 살다』, 앞의 책, 278쪽.

은 그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를 송두리째 앗아간 잃어버린 기억이면서 동시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 아닐 수 없다. 8·15 해방부터 4·3까지, 그는 이 잃어버린 시간을 증언하기 위해 지금까지 ‘재일’의 근거를 찾으며 시를 써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일본 전통 시가에서 자주 사용되는 계절 이미지를 철저히 거부하는 ‘계절어에 대한 저항’을 방법적 전략으로 삼아 여름에서 봄에 이르는 역사로서의 계절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에게 있어서 ‘계절’은 단순히 자연의 순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 이후 우리 역사의 슬픔과 고통이 오롯이 새겨진 뼈아픈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에게 있어서 ‘자연’이란 찬미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의 생활과 실존의 대상이었으므로, 그는 ‘계절어에 대한 저항’을 통해 “죽음마저도 미화되며, 그것에 의해 현실 인식이 뒤틀려버려 전해져야 할 역사적 기억의 계승이 불가능해지”¹⁴⁾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김시중의 시는 봄에서 겨울에 이르는 일반적인 계절의 순서가 아닌 ‘여름에서 봄까지’의 계절을 따라가며 그 시간에 투영된 역사를 증언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그가 평생 말하고 싶었지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제주 4·3의 기억이 있었음에 틀림없다. 김시중에게 “여름은 계절의 시작”(「여름, 『잃어버린 계절』)¹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대로 다시 여름이 오고/ 여름은 다시 메마른 기억으로 하얗게 빛나/
발산하는 도시에서 꽃[岬]의 꼬트머리로 물러나는가./ 염천에 메말라 버
린 목소리의 소재는/ 거기선 그저, 나른한 광장의 이명(耳鳴)이며/ (중
략)/ 허공에 아우성은 끓기고/ 이글거리던 열기도/ 아지랑이일 뿐인 여름
에/ 병어리매미가 있고/ 개미가 피어드는/ 병어리매미가 있고./ 반사되

14) 오세중, 「위기와 지평-『지평선』의 배경과 특징」, 『지평선』, 앞의 책, 222쪽.

15) 유숙자 옮김(2013), 「경계 위의 서정: 在日 시인 김시중 四時 시집 『잃어버린 계절』」, 『서정시학』23(3)호, 74-75쪽.

는 햇살의/ 통증 속에서/ 한 가닥 선향(線香)이/ 가늘게 타오르는/ 소망
의/ 여름이 온다./ 여름과 더불어/ 가 버린 세월의/ 못 다한 백일몽이여.

- 「여름이 온다」 중에서¹⁶⁾

김시중의 시에는 '병어리매미'의 형상이 자주 등장한다. “나는 겨우 스물여섯 해를 살았을 뿐이다./ 그런 내가 병어리매미의 분노를 알게 되기까지/ 100년은 더 걸린 듯한 기분이 든다.”(「먼날」, 『지평선』)¹⁷⁾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시에서 “병어리매미”의 형상은 자신을 표상하는 상징적 등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인용시에서 화자는 여름이 올 때마다 매미 울음소리에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데, “엄천에 메말라 버린 목소리”를 발산하듯 모든 목소리를 다하고 죽어버리는 매미를 보면서 재일의 현실 속에서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즉 생명을 다해 울부짖고 싶은 매미의 절규, 하지만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는 내적으로 감추고 살아가는 “병어리매미”의 모습에서, “여름은 다시 메마른 기억으로 하얗게 빛나”지만 “허공에 아우성은 끊기고/ 이글거리던 열기도/ 아지랑이일 뿐인 여름”이라는 계절의 안타까움과 슬픔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절의 의미에는 뜨거운 여름인 8월의 해방이 4·3의 봄을 초래한 원죄가 되었고, 그 결과로 부모와 고향을 등지고 일본으로 도망쳐 온 자신의 목소리마저 철저히 숨기고 살아야만 했던 ‘재일’의 현실에 그대로 대입된다. 다시 말해 김시중이 “병어리매미”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제주 4·3의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고자 하는 목마름인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 상처의 근원적 원인이 해방 이후 미국에 의한 또 다른 식민지적 지배에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는 데 있었다. 결국 김시중에게 여름은 “고향인 제주도에서 황국 소년

16) 김시중, 유숙자 옮김(2008), 『경계의 시』, 소화, 108-109쪽.

17) 김시중, 광형덕 옮김(2018), 『지평선』, 앞의 책, 47쪽.

으로 일본의 ‘패전’을 맞이하고 동포에게 뒤쳐졌다가 겨우 조선인이라는 자각을 되찾은 그 ‘여름’이고, 봄은 “초목이 싹트는 일반적인 ‘봄’이 아니라 저 4·3 사건의 검은 기억과 하나가 된 ‘봄’¹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김시중의 잃어버린 계절은 여름에서 시작하여 봄에 이르는, 그리고 다시 여름에 다다르는 4·3에 뿌리 내린 역사를 살아왔고, 지금도 이러한 뒤틀린 계절의 순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시중은 “떠나갈 듯한 가을 노랫소리에/ 허위의 껍질은 벗겨 집니다./ 가을비에 백귀(百鬼)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가을 노래」, 『지평선』, 139쪽)라며 가을을 지나, “어김없이 오는 겨울”, 그것도 “더욱이 기다려야 할 봄의 겨울”(「여름 그 후」)¹⁹⁾을 맞이하려는 뚜렷한 지향점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그는 ‘봄’을 그저 ‘봄’이라고 하지 않고 ‘봄의 겨울’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게 ‘봄’은 여전히 겨울의 시간을 극복하지 못한 채 지독한 추위를 견디는 상처와 고통의 시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 90년대 말부터 그는 기나긴 겨울의 시간을 뒤로 하고 고통스러운 제주 4·3의 봄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다. ‘재일’의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 4·3의 기억을 내면 깊숙이 간직하며 살아왔으므로 한시도 그것을 외면한 적은 없지만, 언제나 4·3을 증언하는 방식은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경로를 통한 상징적 체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에 대한 속죄의 시간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침묵²⁰⁾의 세

18) 호소미 가즈유키, 동선희 옮김(2013), 『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 김시중』, 어문학사, 241쪽.

19) 유숙자 옮김, 「경계 위의 서정 : 在日 시인 김시중 四時 시집 『잃어버린 계절』, 앞의 책, 81-83쪽 참조.

20) 김시중의 제주 4·3에 대한 침묵의 이유에 대해서는 윤여일의 앞의 글, 287쪽을 참고할 만하다. “남로당 연락책이었던 자신이 걸로 드러나면 군사정권이 강변해온 공산 폭동 운운을 괜히 뒷받침해 주민봉기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으며, 홀로 도망쳐 나왔다는 죄의식으로 자신을 주어 삼아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으로 불법입국한 사실이 밝혀져 강제송환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일본에 온 일을 ‘부득이한 사정’이

월을 넘어서기 위한 속죄양으로서의 그의 시 쓰기는 '비평'으로서의 시적 지향을 올곧게 실천해왔다. 그에게 있어서 "봄은 장례의 계절"(「봄」, 『지평선』, 106쪽)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봄의 치유를 통해 잃어버린 계절을 되찾으려는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성조기를/ 갖지 않은/ 임시방편의/ 해구(海丘)에서/ 중기관총이/ 겨누어진 채/ 건너편 강가에는/ 닢을 잃고/ 호령그대로/ 납죽 엎드려/ 웅크린 / 아버지 집단이/ 난바다로/ 옮겨진다./ 날이 저물고/ 날이/ 가고/ 추(錘)가 끊어진/ 역사자가/ 몸뚱이를/ 묶인 채로/ 무리를 이루고/ 모래사장에/ 밀어 올려진다./ 남단(南端)의/ 들여다보일 듯한/ 햇살/ 속에서/ 여름은/ 분별할 수 없는/ 죽은 자의/ 얼굴을/ 비치처럼/ 빚어낸다./ 삼삼오오/ 유족이/ 모여/ 흘러 떨어져가는/ 육체를/ 무언(無言) 속에서/ 확인한다./ 조수는/ 차고/ 물러나/ 모래가 아닌/ 바다/ 자갈이/ 밤을 가로질러/ 파르릉/ 울린다./ 밤의/ 장막에 에워싸여/ 세상은/ 이미/ 하나의/ 바다다./ 잠을 자지 않는/ 소년의/ 눈에/ 새까만/ 서면호가/ 무수히/ 죽은 자를/ 질질 끌며/ 덮쳐누른다./ 망령의/ 웅성거림에도/ 불어터진/ 아버지를/ 소년은/ 밟지 않는다./ 두 번 다시/ 질질 끌 수 없는/ 아버지의/ 소재로/ 소년은/ 조용히/ 밤의 계단을/ 바다로/ 내린다.

- 『니이가타』 제2부 <해명(海鳴) 속을> 중에서²¹⁾

김시중은 제주 4·3에 대한 침묵의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4·3을 직접적으로 형상화하는 시는 거의 쓴 적이 없음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니이가타』라는 시집 안에서 한 장 정도 제주도의 해변은 모래사장이 아니라

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며 지내왔다. 4·3을 말하기 시작한 1990년대 후반은 한국에서 4·3이 역사적으로 복권되는 시기였다. 2000년 1월에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4·3특별법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그해 4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주도 4·3사건 52주년 기념강연’에서 그는 청중들에게 4·3때 겪은 일을 직접 말했다. 한국에서 4·3이 터부시된다면 그 역시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1) 김시중, 광형덕 옮김, 『니이가타』, 앞의 책, 98-102쪽.

자갈 해변인데 거기에 철사로 손목이 묶여 바다에 던져진 희생자의 사체가 밀려온 상태를 쓴 것과, 그것과 관련해 바다에 가라앉은 아버지를 아이가 찾아다닌다고 하는 것을 쓴 정도지요”라고 고백하거나, “4·3 사건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4·3사건 체험자로서의 마음의 빛, 트라우마가 역으로 움직여 제가 작품으로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광주시편』(1983년)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광주시민의거를 새긴 이 시집은 4·3사건과의 균형이 없었다면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²²⁾라고 말한 데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인용시는 첫 번째 고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4·3의 희생자였던 제주의 수많은 아버지의 죽음과 가족들의 상처와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주 4·3의 기억과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을 겹쳐 바라봄으로써, 해방 이후 일본에서 미국으로 식민의 주체만 바뀐 한반도의 현실이 결국 제주 4·3의 참극을 가져온 결정적 원인이 되었음을 암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제강점의 시간을 지나 해방과 미군정 그리고 4·3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격변의 세월을 살아온 민중들의 ‘주체’ 찾기의 과정이, 권력을 앞세운 자들의 굴레와 억압 속에서 어떻게 상처와 고통을 감내하며 견뎌왔는가에 대한 역사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상처와 질곡이 계속 이어져 한국전쟁과 분단을 초래했고 재일조선인의 이데올로기 강요로 굳어졌으며, 그 결과 ‘니이가타’ 항구에서의 복송 사업으로 이어졌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시집이 바로 『니이가타』이다.²³⁾ 다시 말해 김시중에게 제주 4·3은 해방 이후

22) 김석범·김시중, 문경수 편, 『왜 계속 써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앞의 책, 156-157쪽.

23)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집 『니이가타』를 통해 조총련의 귀국 사업과 재일조선인의 장소 표상으로서의 문학지리를 논의한 박광현의 글을 참고할 만하다. 그는 “‘니이가타’라는 기호는 일본과 조국, 조국과 재일, 재일과 일본, 분단조국과 나, 식민지의 기억과 재일 등 다양한 관계성을 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2장 <해명 속을>에서 “일본에 의한 징용,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사건, 4·3사건, 5·10남한단독선거, 한국전쟁” 등의 역사를 서사화했음을 주목했다. 그리고 “시의 화자는 니이가타의 바다를 바라보며, 4·3사건에 살육되어 바다로 버려진 시체들”이 흐르는 “제주도의 바다, 그리고

제주의 역사적 상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재일'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제주 4·3의 기억을 증언하고 위무하는 것이야말로 재일조선인으로서의 그의 삶과 시가 지향해야 할 근원적이면서 궁극적인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봄은 장례의 계절입니다./ 소생하는 꽃은 분명히/ 야산에 검게 피어 있
 겠죠.// 해빙되는 골짜기는 어둡고/ 밑창의 시체도 까맣게 변해 있을 겁
 니다.// 나는 한 송이 진달래를/ 가슴에 장식할 생각입니다./ 포탄으로
 움푹 팬 곳에서 핀 검은 꽃입니다.// 더군다나, 태양 빛마저/ 검으면 좋겠
 으나.// 보랏빛 상처가/ 나올 것 같아서/ 가슴에 단 꽃마저 변색될 듯합니
 다.// 장례식의 꽃이 붉으면/ 슬픔은 분노로 불타겠지요./ 나는 기원의
 회환을 짊 생각입니다만.....// 무심히 춤추듯 나는 나비도/ 상처로부터
 피의 분말을 날라/ 암꽃술에 분노의 꿀을 모읍니다.// 한없는 맥박의 행
 방을/ 더듬거리려 찾을 때,/ 움트는 꽃은 하얗습니까?// 조국의 대지는/ 끝
 없는 동포의 피를 두르고/ 지금, 동면 속에 있습니다.// 이 땅에 붉은색
 이외의 꽃은 바랄 수 없고/ 이 땅에 기원의 계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봄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진달래가 숨 쉬고 있습니다.

- 「봄」전문²⁴⁾

인용시의 “봄”은 분명 제주 4·3의 봄이다. 세상 모두가 봄을 일컬어 “기원의 계절”, 즉 계절의 시작이라고 말하지만 시인에게 “봄은 장례의 계절”일 따름이다. 그래서 봄은 “검게 피어” 있고, “해빙되는 골짜기는

아오모리(青森)의 오나모토(大湫)항에서 부산으로 향하던 우키시마마루가 침몰하여 600여명 가까이 사망한 마이즈루(舞鶴)의 앞바다 등 민족의 비극이 어린 바다를 연상한다”고 보았다. 박광현(2016.5), 「귀국사업과 ‘니가타’ - 재일조선인의 문학지리」, 『동악어문학』제67집, 동악어문학회, 224쪽.

24) 김시중, 광형덕 옮김, 『지평선』, 앞의 책, 106-108쪽.

어둡고/ 밀창의 시체도 까맣게 변해 있”으며, “포탄으로 움푹 팬 곳에서 핀 검은 꽃”으로 뒤덮여 있을 뿐이다. “태양 빛마저/ 검은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 지독한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그는 봄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다. “장례식의 꽃이 붉으면/ 슬픔은 분노로 불타겠지요”라고 하면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동포의 피를 두”른 듯한 “진달래”의 형상에 자신의 분노를 투영한다. 그리고 “무심히 춤추듯 나는 나비도/ 상처로부터 피의 분말을 날라/ 암꽃술에 분노의 꿀을 모”으듯, 제주 4.3의 기억을 소환하여 이를 세상에 증언하는 ‘비평’으로서의 시적 방향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이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시는 현실 인식의 혁명”이라는 그의 말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명명된 김시중의 ‘시론’이다. 그는 시가 혁명의 중심에 서서 부조리한 현실의 한 가운데를 파고 드는 ‘저항’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다. 그가 평생 ‘병어리매미’의 심정으로 살아오면서 진정으로 말하고 싶었지만 끝끝내 말할 수 없었던,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다가와서야 마지막으로 외칠 수 있게 된 목숨을 담보한 목소리가 바로 제주 4.3의 역사적 상처와 고통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인 것이다.

숲은 목선 바람의 바다였다/ 숨죽인 호흡을 짓눌러/ 기관총이 베어 낸
광장의 저 아우성까지 흩뿌리며/ 시대는 흔적도 없이 엄청난 상실을 실어
갔다/ 세월이 세월에 방치되듯/ 시대 또한 시대를 돌아보지 않는다// 아
득한 시공을 두고 떠난 향토여/ 남은 무엇이 내게 있고 돌아갈 수 있는
무엇이 거기 있나/ 산사나무는 여전히 우물가에서 열매를 맺고/ 뺨 하니
뚫린 문짝은 어느 누가 어찌 손질해/ 그 어느 봉분 속에서 부모님은 흙
묻은 뼈를 앓고 계시는가/ 서툰 음화 흰 그림자여// 아무튼 돌아가 보기
로 하자/ 오래 인적 끊긴 우리 집에도/ 울타리 국화꽃이야 씨앗 영글어
흐드러지겠지/ 영영 빈집으로 남은 빗장을 벗겨/ 요지부동의 창문을 부

드러이 밀어젖히면/ 갇힌 밤의 사위도 무너져/ 내게 계절은 바람을 물들여
 닿으리라/ 모든 게 텅빈 세월의 우리(檻)/ 내려 쌓이는 것이 켜켜이 쌓인
 이유임을 알 수도 있으리라// 송두리째 거부되고 찢겨 나간/ 백일몽의
 끝 그 처음부터/ 그럴듯한 과거 따위 있을 리 없어/ 길들여 익숙해진 재일
 (在日)에 머무는 자족으로부터/ 이방인인 내가 나를 벗어나/ 도달하는 나
 라의 대립 틈새를 거슬러 갔다 오기로 하자// 그렇다, 이젠 돌아가리/ 노
 을빛 그옥이 저무는 나이/ 두고 온 기억의 품으로 늙은 아내와 돌아가리
 - 「돌아가리」 중에서²⁵⁾

김시중은 1998년 3월, 제주 4·3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일본으로 밀항한 이후 처음으로 고향 제주에 입국하여 부모님의 묘소를 참배했다. “살아남았다 해도/ 사라질 건 벌써 사라져 갔습니다”(「먼 천둥」, 『광주시편』, 21쪽)²⁶⁾라는 탄식에서처럼, 그가 간절히 보고 싶어 했던 부모님과 고향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음이 당연했다. 하지만 그는 “시대는 흔적도 없이 엄청난 상실을 실어갔다/ 세월이 세월에 방치되듯/ 시대 또한 시대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이 흘러갔지만, 이제 “두고 온 기억의 품으로” “돌아가리”라고 말한다. “길들여 익숙해진 재일(在日)에 머무는 자족으로부터/ 이방인인 내가 나를 벗어나/ 도달하는 나라의 대립 틈새를 거슬러” 가는 새로운 모색을 꿈꾸고자 하는 것이다. 이후 그는 제주 4·3의 기억을 증언하는 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 ‘재일’의 근거로서의 4·3의 의미를 찾는 데 자신의 삶과 시의 대부분을 헌신했다. 여기에서 그가 무엇보다도 “틈새를 거슬러” 가는 선택을 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에는/ 나라가/ 두 개나 있고/ 오늘 나간 건/ 그 한쪽이야./ 말하자면/ 외발로/ 공을 찬 거지.”(「내가 나일 때」, 『경계의 시』, 31-32쪽)²⁷⁾

25) 김시중, 유숙자 옮김(2008), 『경계의 시』, 앞의 책, 170-172쪽.

26) 김시중, 김정례 옮김(2014), 『광주시편』, 푸른역사, 21쪽.

27) 김시중, 유숙자 옮김, 『경계의 시』, 앞의 책, 31-32쪽.

에서처럼, 더 이상 분단 시대라는 조국의 현실 앞에서 침묵하거나 방조하지 않고 그 대립의 틈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송두리째 거부되고 찢겨 나간/ 백일몽의 끝”을 “그 처음부터”라고 인식하는 데서 이미 ‘틈새’를 거슬러 오르는 김시종의 혁명은 시작되었음에 틀림없다.²⁸⁾ 그리고 그 출발점이 제주 4·3의 기억을 증언하고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됨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4. 맺음말

최근 한 일본 연구자는 “김시종을 읽는다는 것은 그것을 읽고 있는 ‘나’의 서정과 대면하고 그것을 건드리는 일과 연결된다.”²⁹⁾라고 말했다. 이는 김시종의 시가 일본인인 자신에게 ‘일본’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조선인으로서 일본을 말함으로써 일본을 비판해온 김시종의 시적 지향에 대한 내적 충격을 고백한 것이다. 김시종의 시는 “대다수의 일본인들이 자명하게 생각하는 일본어로 된 시집이 아니라 일본어적 세계를 안으로부터 파괴해서 바깥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가득 차 있”³⁰⁾다. 따라서 김시종은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의 실존에 대한 집요한 탐색을 일관되게 실천해 왔고, 역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모순으로 가득 찬 ‘재일’의 현실

28) 김시종에게 ‘틈새’는 “여러 분단선이 겹쳐 파이는 곳이다. 거기서 여러 힘이 가해진다. 따라서 틈새는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다. 거기서 세계는 뒤틀린다. 김시종은 그 틈새에 몸을 두고 ‘틈새에 있음’을 내적 성찰에 나서야 할 상황으로 전유하고자 했다.” 윤여일, 「틈새와 지평」, 『재일의 틈새에서』, 앞의 책, 370-371쪽.

29) 가게모토 츠요시, 「서정, 생활의 깊이에서 연대로-김시종 시를 2018년 한국에서 읽는다는 것」, 『작가들』 2018년 여름호, 166쪽.

30) 광형덕, 「분단과 냉전의 지평 너머를 꿈꾸다」, 『지평선』, 앞의 책, 241쪽.

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심에 두고 실천했다. 그의 시가 자연의 조화로움과 계절의 미학에 탐닉해 온 '단가적 서정'을 부정함으로써 '비평'으로서의 시의 혁명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한 것도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시적 전략이었음에 틀림없다.

김시중의 시는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그 중심에서 읽어내도록 하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그는 해방 이후 남로당에 가입하여 제주 4·3에 가담했고, 일본으로 밀항해 일본공산당에 가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총련 활동에 주력했던 좌파 운동가이자 시인이었다. 하지만 '재일'의 생활과 실존을 외면한 채 조직의 강령과 통제에 길들여져 가는 좌익 조직과의 극단적 대립을 겪으면서 북쪽도 남쪽도 아닌 '조선'적을 유지한 채 '재일을 살아가는'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운명을 짊어져 왔다. 남과 북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그대로 답습했던 재일조선인 사회의 이원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경계의 지점에서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자신의 삶과 시의 가능성을 열어왔던 것이다. 또한 모국어와 모어 사이에서 갈등하는 재일조선인의 이중 언어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일본어가 아닌 일본어, 즉 일본어의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이단의 일본어를 사용하는 문제적인 시인이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재일조선인 사회의 민족적 관념성을 넘어서 '재일'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과 시는 '재일'의 근거로서의 제주 4·3에 대한 기억을 증언하고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침묵하거나 우회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2000년 이후 김시중의 삶과 시는 바로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시중에게 제주 4·3은 근원적 세계이면서 궁극적인 세계이다. 이러한 양가성은 그의 삶과 시가 언제나 제주 4·3의 기억 속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록 그가 4·3의 기억을 다시 현실로 불러온 것이 2000년 이후에 이르러서이지만, 첫 시집 『지평선』에서부터

『니이가타』, 『광주시편』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의해 자행된 유사한 사건들에 대한 비판에 기대어 우회적으로 증언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장편시집 니이가타』에 담긴 제주 4·3 항쟁의 묘출은, 예를 들면 오키나와 전투라는 사건과 겹쳐질 수 있는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³¹⁾는 것처럼, 그동안 그의 시는 내면 깊숙이 4·3의 기억을 간직한 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권력을 향해 투쟁하는 보편성을 추구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그의 시에서 제주 4·3의 문제의식을 ‘제주’라는 특정한 장소성에 한정하여 바라보기보다는 식민의 역사를 공유해온 동아시아적 시각에서 쟁점화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는 그의 시가 역사와 현실의 모순을 넘어서는 비판적 저항으로서의 증언의 성격과 혁명적 지향을 일관되게 실천해 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혁명적 실천은 ‘비평’으로서의 시라는 ‘재일’의 시학을 정립해 온 김시중의 시학적 방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투고연장일	: 2019년 02월 17일
논문투고일	: 2019년 01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2월 26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3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3월 19일

31) 오세중, 『위기와 지평 - 『지평선』의 배경과 특징』, 앞의 책, 232쪽.

■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김시중, 유숙자 옮김(2008), 『경계의 시』, 소화.
김시중, 광형덕 옮김(2014), 『니이가타』, 글누림.
김시중, 김정례 옮김(2014), 『광주시편』, 푸른역사.
김시중, 광형덕 옮김(2018), 『지평선』, 소명출판.

2. 단행본 및 논문

- 가게모토 츠요시(2018), 「서정, 생활의 깊이에서 연대로 - 김시중 시를 2018년 한국에서 읽는다는 것」, 『작가들』2018년 여름호, 163-168쪽.
김계자(2016.5), 「김시중 시의 공간성 표현과 '재일'의 근거」, 『동악어문학』제67집, 동악어문학회, 177-204쪽.
김석범·김시중, 문경수 편, 이경원·오정은 역(2007), 사회과학연구소 편, 『왜 계속 써 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교출판부.
김시중, 윤여일 옮김(2016), 『조선과 일본에 살다』, 돌베개.
김시중, 윤여일 옮김(2017), 『재일의 틈새에서』, 돌베개.
박광현(2016), 「귀국사업과 '니가타' - 재일조선인의 문학지리」, 『동악어문학』제67집, 동악어문학회, 205-238쪽.
심수경(2017), 「재일조선인 문예지 『진달래』의 오도 도자부로 수용 양상」, 『일본문화연구』제64집, 동아시아일본학회, 179-201쪽.
윤건차, 박진우 외 옮김(2016),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출판.
하상일(2017), 「김시중과 『진달래』」, 『한민족문화연구』제57집, 한민족문화학회, 61-90쪽.
호소미 가즈유키, 동선희 옮김(2013), 『디아스포라를 사는 시인 김시중』, 어문학사.

김시중의 ‘재일’과 제주 4·3의 시적 형상화

하상일

이 논문은 김시중의 시를 제주 4·3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즉 그가 민족 혹은 국가 이데올로기의 억압과 폐쇄성을 넘어서 ‘재일’의 독자성과 주체성을 무엇보다도 강조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재일한다[在日する]’라는 적극적인 의지로 심화된 그의 언어의식과 실존의식이 제주 4·3을 증언하는 역사의식과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그의 시는 ‘재일’의 근거를 찾는 ‘비평’으로서의 시적 지향을 드러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김시중은 ‘부정’과 ‘저항’으로서의 사상적 지향을 담은 오노 도자부로의 ‘비평’으로서의 시론을 토대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형상화하는 데서 ‘재일’을 살아가는 시인으로서의 올곧은 시적 방향을 정립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동일성을 구현하는 조화와 찬미의 세계에 바탕을 둔 자연을 제재로 한 전통 서정이 보여주는 음률적 지향을 넘어, 현실을 사유하고 비판하는 ‘비평’으로서의 시적 지향을 새로운 서정의 태도로 정립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는 제주 4·3이라는 근원적 죄의식과 불안을 극복해야만 했던 평생의 과제를 실천하는 가장 의미 있는 시와 시론의 방향이 되었다.

둘째, 제주 4·3의 기억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김시중의 작품을 살펴보았다. 그가 제주 4·3의 직접적 체험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것이 200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했다. 따라서 그의 시에 형상화된 제주 4·3의

모습은 현장성이 강화된 직접적인 성격을 드러내기보다는 폭력의 시대가 자행한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기대어 간접적이고 암시적으로 형상화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결과 김시종과 제주 4·3의 시적 형상화는 다분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방식으로 부당한 시대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성격을 지녔다. 이러한 특징은 김시종에게 있어서 제주 4·3이 자신의 삶과 시를 규정하는 근원적 바탕이 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오랜 세월 그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을 원죄처럼 감추고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비극적 운명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동안 김시종의 삶과 제주 4·3을 연결 짓는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그의 시와 제주 4·3을 직접적으로 연결 지어 이해하려는 시도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재일'의 역사를 짚어낸 채 살아온 김시종의 시와 삶을 4·3의 문제의식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김시종, 제주 4·3, 오노 도자부로, 재일한다, 언의의식, 실존의식, '재일', '비평'으로서의 시

Abstract

Kim Si-jong's 'Jaeil[在日]' and poetic embodiment
of April 3 Jeju Uprising

Ha, Sang-il*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mmarize the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Kim Si-jong's poetry under the context of the April 3 Jeju Uprising. That is, the study intends to investigate how his linguistic consciousness and existential consciousness deepened with assertive intent of 'Jaeilhada [在日する]', residing in Japan' meet with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that testifies the April 3 Jeju Uprising with attention paid to the emphasis placed on the independence and identity of 'Jaeil' beyond the oppression and closure of ethnic or national ideology.

First, the study noted that his poetry revealed poetic orientation as part of 'criticism' to find the basis of 'Jaeil'. That is, Kim Si-jong struggled to establish the right-minded direction of his poetry as one of the 'Jaeil' poets on the basis of the Ono Tozaburo's poetics as 'criticism' that manifest the ideological orientation as 'denial' and 'resistance'. In other words, he believed that the poetic orientation as 'criticism' that reasons and criticizes the reality should be established as an attitude of new lyric beyond the melodic direction

* Dongeui University

shown by the traditional lyricism with nature used as a topic. This led to the most meaningful poetry and the direction of poetics that practice the lifelong task of having to overcome the underlying guilt and anxiety of April 3 Jeju Uprising. Second, the study has examined Kim Si-jong's works that poetically portrayed the memory of April 3 Jenu Uprising. The images of April 3 Jenu Uprising depicted in his poetry are mostly indirect and implicit projection leaning toward other comparable incidents committed by the era of violence instead of revealing direct characteristics with emphasis on the sense of presence. As a result, Kim Si-jong and his poetic embodiment of April 3 Jeju Uprising are characterized by the voice of resistance against the unjust times in a rather symbolic and figurative manner, which is a result of critical reflection on his distressed destiny of having to live hiding his pain and suffering from the tragic history of April 3 Jeju Uprising that redefined his life and poetry as if they were his original sin.

Key-words : Kim Si-jong, the April 3 Jeju Uprising, Ono Tozaburo, 'Jaeilhada [在日する], linguistic consciousness, existential consciousness, 'Jaeil [在日]', poetics as 'criticism'